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독도를 가슴에 품다, VANK
<p>I. 목적</p> <p>독도가 계속해서 우리 땅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독도에 대해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p> <p>그래서 독도를 홍보하여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기 위해 독도가 영원히 우리 땅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 <p>II.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p> <p>1. 독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지식의 수준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수준의 홍보를 계획하여 교내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아리 팀원 간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서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p> <p>2. 교내 축제를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교내 선생님들께 독도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독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독도에 관한 심오한 내용을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판넬을 만들면서 독도에 대한 애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p> <p>III. 특색 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p> <p>1. 교내 축제에서 독도에 관한 우리나라 기사를 스크랩하여 일부 칸을 비워놓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답을 채워 넣는 활동을 하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스스로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p> <p>2. 교내 축제에서 독도 관련 내용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해 보았던 OX퀴즈의 문제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독도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p>	

3. 교내 축제에서 독도의 역사, 다른 나라의 영토분쟁,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등을 부원들이 조사하고, 독도를 홍보하는 판넬을 만들어 전시하여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 교내 1, 2학년을 대상으로 독도 강치 배지와 독도 섬 모양 배지를 공동 구매하여 학생들이 독도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홍보방식을 찾기 위해 교내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6. 독도 섬의 모습을 크게 인쇄하고, 딱딱한 스티로폼에 붙여 퍼즐의 형태로 만들어 독도 섬 사진 위에 학생들이 독도에게 한 줄 정도의 편지를 쓰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IV. 주요 성과

1. 독도체험 방식이 어렵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알아가고, 독도체험을 준비하는 동아리 부원들 또한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평소 독도의 역사와 외교 등에 관심이 많던 본 동아리 부원 외 학생들이 독도가 어려운 주제가 아님을 저희 동아리의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알게 되어 독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본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본 동아리가 눈높이에 맞도록 독도를 홍보하는데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V. 소감 및 일반화 계획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파악했으니 이후 독도발표대회가 끝나더라도 수준에 맞는 홍보방식을 계획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독도사랑실천과 독도홍보를 위해 타 지역에서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

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활동은 타 지역에 가서 동아리 부원이 직접 만든 피켓과 판넬을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독도에 대해 묻고 독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만든 도안으로 제작한 독도 스티커를 사람들에게 배부하면서 활동을 끝낼 예정입니다. 부원들이 직접 독도에 대해 조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부원들 스스로 독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100일간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문득 우리가 아직 독도를 우리만의 힘으로 지키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분발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동아리는 이 100일간의 여정이 끝나더라도 독도사랑실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